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웨체스터교협 연합 부흥회  
일시: 2017년 9월 29일(금)-10월 1일(주).  
금, 토: 오후 8시; 주일: 오후 5시  
장소: 한인동산장로교회(이 풍삼 목사)  
강사: 김 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주제: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 Watch and Pray  
Prayer for Nations : South and North Korea, USA and All Nations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 Grace Baptist Church. (20 Demarest Ave. Nanuet, NY 10954)
- 교육부 광고 : Apple Picking  
일시 : 10월 1일(일) 점심식사 후 출발 - 오후 5시 교회 도착  
장소 : 미정(교회에서 가까운 장소로 결정하여 다음주 공지)  
비용 : \$10.00 - \$20.00

2017년 9월 안내 :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 황 혜영 집사 / 시편 25:1-9

이번 주 친교 : 김 경화 집사 / 서 현숙 권사

다음 주 친교 : 김 경철 전도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시 1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39 호

2017년 09월 24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 년 9 월 24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149 장(통 147 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05:1-6, 37-45 권 순일 집사
찬양(Choir)	"주 내게 행하셨네"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룻(Ruth) 1:16-17; 2:11-12; 3:8-10; 4:9-12 인도자
설교 (Sermon)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2)" 이 민영 목사 - 왕이 없다고 -
* 찬송 (Hymn)	438 장(통 495 장) 다함께 "내 영혼이 은총입어"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 2017. 9. 17. 주일 설교 요약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1): 왕이 없으므로 (삿 2:6-10, 16-23; 21:25)

국가의 삼대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내리시는 좋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다스릴 것이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 생활을 도우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받은 신분과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통치의 빈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외적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백성이 돌이켜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사이클(Rebellion - Retribution - Repentance - Restoration)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열두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열두번이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을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시 50:15).

그러나 문제는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해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망합니다. 열두번이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반복해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더 심한 범죄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드라마틱하고 출중한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패턴이 반복될수록 잠시나마 허락되었던 평화마저 누리지 못하고 고생과 원망만 늘어갑니다.

사사들도 점차 악화됩니다. 능력은 더 출중한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없습니다. 입다는 함부로 서원하다가 딸을 희생하기도 하고, 공명심에 동족상잔을 벌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받은 삼손은 그 능력을 기생의 환심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17:6; 18:1; 19:1; 21:25).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복이 아닙니다. 왕이 없어 소견대로 행한다면 반복된 은혜가 오히려 화가 됩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할 더 큰 어려움과 미련함에 빠집니다. 물론 간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셔도 우리 영혼은 파괴해집니다(시 106:15). 열두번이나 구원하신 사사기의 마지막 몇 장은 제 멋대로 예배, 제 멋대로 차지한 땅, 제 멋대로 행한 공의, 제 멋대로 베푸는 공물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더 큰 은혜와 구원만을 구할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더 강력한 지도자를 주셔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미 왕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라고 요구하고 자랑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나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라고 요구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왕이 있습니까?